치커리 정장·당뇨예방에 탁월

농협인제지부「치커리 명품화」세미나서 발표

◇치커리세미나가 지난달 18일 강원도 주최로 인제군 문화관에서 열렸다.

치커리를 섭취할 경우 인체내 에탄생성균을 억제하는 정장효과와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미 알려진대로 치커리가 당뇨 예방이나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강원도가 최근 인제군 문화관에서 농협인제군지부(지부장 이수천)의 주관으로 이승호 인제군수를 비롯해 치커리 재배농가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치커리 명품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림대 신현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흰쥐실험을 통해 치커리에 함유된 이눌린 등 각종 성분의 작용으로 다양한 생리적 효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 김수일 농화학과 교수는 유럽연합국가 등지에서는 치커리가 식품 및 의약품·화공약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도로 개발돼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이명기 도농정산림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치커리를 이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 ▲치커리를 이용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 ▲현대식 가공공장 설치 ▲재배농가에 생산시설 지원 등을 통해 치커리가 국민들의 생활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커리는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홍천·양구·고성등 강원도내 2백80여농가가 재배면적 2백20여ha에 재배하고 있다.

삼백초 인공재배 성공

충북 농진원 새 농가소득원 기대

충북도농촌진흥원(원장 이상섭)이 신비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삼백초의 인공재배에 성공했다.

도진흥원에 따르면 삼백초는 「중앙대사전」과 「당뇨본초」등 약용작물 전문서적에 성인병과 인체내 제독효과가 탁월하다는데 착안, 지난 3월 경남 거창지역에서 모종을 구입, 도내 청원·옥천·괴산·영동군 등 도내 4개군에 1농가씩 4농가를 선정해 인공재배를 실시했다는 것.

시험재배 결과 10a(3백평)당 평균 잎과 줄기 3백15kg과 뿌리 2백10kg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둬 새로운 농가소득원은 물론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그늘이 약간 지고 비옥하면서 습한 토질에서 자란 삼백초는 이뇨·해독·항암·고혈압·당뇨·장기능 강화·변비 등에 효과가 있으며 뿌리와 잎을 말려 달여 먹으면 된다.

초피, 소득작목화 추진

전남승평농협 지원책 확정

천연향신료와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초피의 농가소득작목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승평농협(조합장 조광훈)은 이를 위해 초피묘목 작역시업료 7백평을 조성, 희망농가에 재배기술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가시없는 우량묘목을 생산해 농민조합원들에게 실비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승평농협은 초리과원은 새로 조성하는 농가에는 소득개발 중기저리자금을 융자해주며 판매망 확보와 가공이용에 역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포장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일반상인이나 한약업사를 불문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약재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약재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이 밝힘으로서 앞으로도 한약방 등에서 판매하는 한약재의 원산지표시 유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대한한약협회가 「한약방의 한약재는 의약품이므로 농림부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림부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공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판매장소 및 판매자에 따라 차별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한약제 및 조제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한약재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낱개 또는 포대에 넣어진 상태로 진열된 한약재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방

△정형모 부회장 △박재문 이사 △김용한 이사 △김성배 경기 지부장 △박영임 강원 지부장 △정기효 평택군 사무소장 △이계춘 경기 성남시 공판장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최성기 전남 보성군 공판장장 △류복규 경북 영주시 공판장장

사설

한약재 안전성 선결과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입산 국산 할 것 없이 광범위한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인삼농축액에서는 맹독성 농약까지 검출되었다는 최근 발표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이들 발표가 모두 사실이라면 대다수 국민은 병을 고치려다 자신도 모르게 병들고 있는 꼴이 된다. 그러나 한약재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산지가 제각기 다르고 그에 따른 성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일부 표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동종 한약재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약재의 안전성 제고는 다음 몇가지 문제점이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번 '분유파동'과 같은 웃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은 직 간접적으로 이뤄진다. 중금속은 토양속에 존재하다가 뿌리를 통해 흡수되는가 하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분진 등에 의해 오염되기도 한다. 또 세척과정이나 건조, 보관과정에서도 오염될 수 있으며 토양으로부터의 오염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금속 오염 예방의 최선책은 생산자 스스로가 오염의 개연성을 염두하고 양심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즉 스스로 토양성분을 조사 또는 의뢰해서 경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에서는 한약재 재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중금속 유해기준을 보다 폭넓게 제정하고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 기준도 없는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유해 물질인양 오도돼 나라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유파동'의 전철은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금속 뿐만아니라 농약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약재 재배에 사용되고 있는 농약 종류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하고 이에따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단지 농약이 검출되고 안되고의 사실유무만으로는 소비자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한약재의 고품질화는 이렇듯 생산자의 의지와 정부의 철저한 유해물질 기준제정과 계도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학술화제

인삼 수경재배법 개발…국내 최초

高大 원예학과 박권우 교수팀 개가

인삼을 수경재배하는 방법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고려대는 18일 인삼의 대량속성 재배가 가능한 수경재배법을 원예학과 박권우 교수팀이 3년간의 연구끝에 개발 했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기존 재배기간의 반정도면 인삼의 독특한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인삼을 생산할 수 있다』며 『땅에서 기를 때는 흙안에 들어있는 해충이 인삼을 갉아먹기 때문에 많은 농약을 뿌려야 하지만 물에서 기를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두배 정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인삼을 땅에서 재배할 경우 평당 40~80뿌리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수경재배를 통해 그 3배인 평당 1백20~1백80 뿌리를 재배할 수 있게 됐으며, 겨울철 재배가 가능해 재배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항암물질인 게르마늄·셀레늄 등을 배양액에 섞어 인삼의 약리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 인삼재배가 가능해졌다고 고려대측은 설명했다.

박교수는 『우리나라의 인삼재배 면적과 수확량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항암물질 등 특수성분을 가미해 짧은 기간에 약리효과가 높은 고품질 인삼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연구목표였다』고 말했다.